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연구위원, 김태영 연구원
(전화 : 3299-4265 / changgil@krei.re.kr, 전화 : 3299-4315 / tykim@krei.re.kr)

1. 문제 제기	/ 1
2.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 2
3.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 6
4. 시사점	/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연구결과물 중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간결하게 정리, 정책 담당자나 농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KREI 농정연구속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1. 문제 제기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 투입과 비싼 친환경농자재의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농법 도입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 등이 실천농가 확산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관행농산물에 비해 실제로 생산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차가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재배의 생산비와 소득 분석에 관한 정보는 정책 담당자는 물론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과의 소득격차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의 보조금 지원 단가가 산정되고 있어 친환경 인증유형별 생산비 및 수익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는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단가는 친환경농업(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는 수준(ha당 524천원)에서 책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지원단가의 인상과 인증유형별 차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소득보전 중심의 현행 직불제 단가 산정 방식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차이 등을 파악하여 새로운 단가 산정기준 제시 등의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곡물류·채소류·서류·과실류에 있어서 주요 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조사 자료를 기초로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단수,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변화추이를 보면 1999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오고 있고, 특히 저농약재배 인증농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는 1999년도에 1,306호였으나 2003년에 17.8배 증가한 23,302호로 매년 약 104%의 급신장세를 보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1999년에는 875ha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약 27배 증가한 23,564ha로 연평균 128% 정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당 실천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999년에는 0.7ha였으나 2003년에는 약 1ha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실천농가수를 보면 1999년에는 저농약재배가 502호, 무농약재배가 449호, 유기재배가 355호였으나, 2003년에는 저농약재배가 13,127호, 무농약재배가 7,426호, 유기재배가 1,452호, 전환기유기재배가 1,297호로 특히 저농약재배 농가수가 연평균 125%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재배면적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와 마찬가지로 1999년에는 저농약재배가 383ha, 무농약재배가 262ha, 유기재배가 231ha였으나, 2003년에는 저농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태 변화추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농가수(호)	1,306	2,448	4,678	11,892	23,302
	면 적(ha)	875	2,039	4,553	11,240	23,564
	인증량(톤)	26,643	35,406	87,279	200,374	365,203
유기	농가수(호)	355	353	439	877	1,452
	면 적(ha)	231	296	448	1,062	3,221
	인증량(톤)	6,996	6,538	10,625	16,249	24,438
전환기	농가수(호)	-	-	3	628	1,297
	면 적(ha)	-	-	2	539	1,433
	인증량(톤)	-	-	45	4,865	8,849
무농약	농가수(호)	449	1,060	1,645	4,084	7,426
	면 적(ha)	262	876	1,293	3,727	6,756
	인증량(톤)	11,798	15,694	32,274	76,828	120,358
저농약	농가수(호)	502	1,035	2,591	6,303	13,127
	면 적(ha)	383	867	2,811	5,911	12,155
	인증량(톤)	7,849	13,174	44,334	102,432	211,558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www.naqs.go.kr), 2003.

약재배가 12,155ha, 무농약재배가 6,756ha, 유기재배가 3,221ha, 전환기유기재배가 1,433ha로 유기재배의 면적이 연평균 80% 정도 증가한데 비해 저농약재배 면적은 매년 134%의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그림 2>. 이는 1999년도부터 도입된 저농약재배 이상의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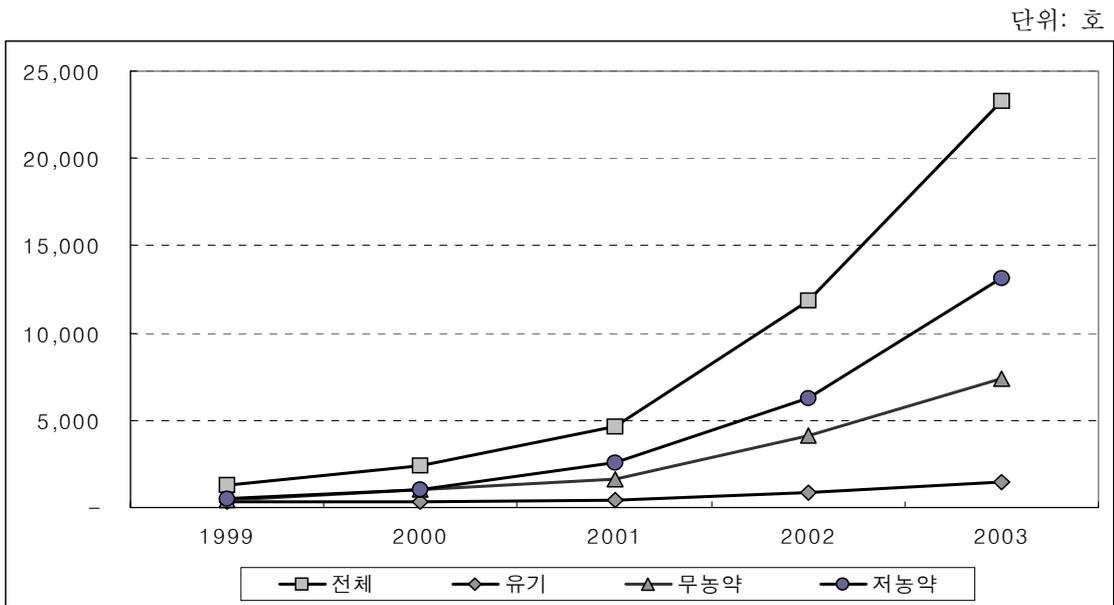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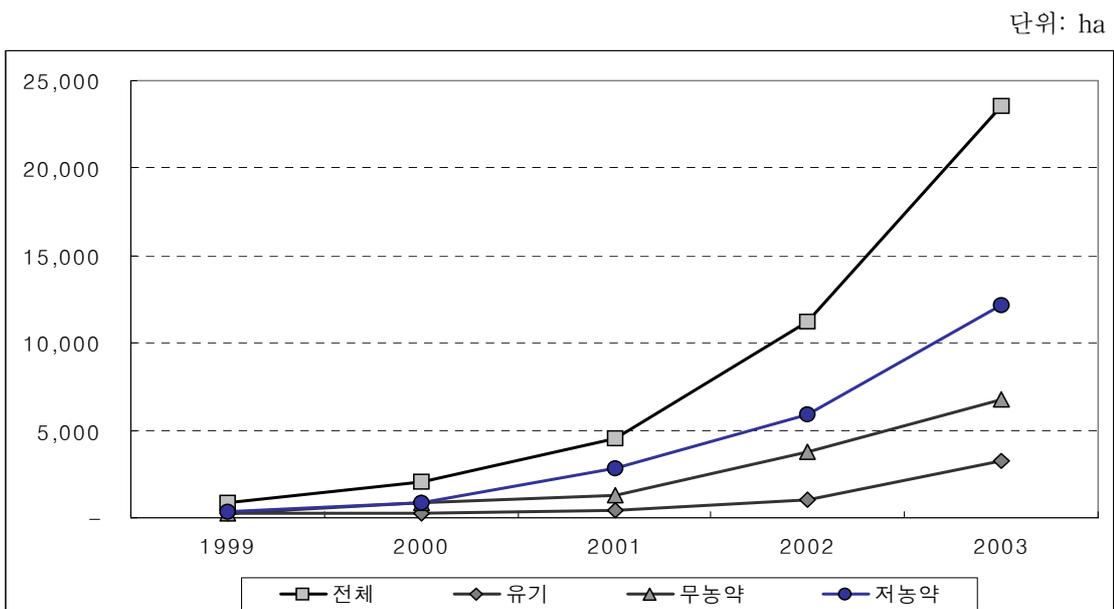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출하량 추세를 보면 1999년에는 총출하량 26,643톤 중 채소류가 81.1%, 과실류가 11.4%, 곡류와 서류가 각각 3.1%, 특작류가 1.3%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채소류가 47.7%, 과실류가 32.8%, 특작류가 9.2%, 곡류가 8.0%, 서류가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실류와 곡류 및 특작류의 출하량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표 2. 친환경 인증유형별 · 종류별 출하량 변화 추이

단위: 톤

연도	종류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계
1999	곡 류	264	-	457	96	818
	과실류	428	-	218	2,388	3,034
	채소류	6,216	-	10,202	5,192	21,611
	서 류	81	-	569	172	822
	특작류	7	-	352	-	359
	계	6,996	-	11,798	7,849	26,643
2000	곡 류	275	-	540	305	1,119
	과실류	624	-	289	4,806	5,719
	채소류	5,489	-	12,302	7,679	25,470
	서 류	149	-	397	384	930
	특작류	1	-	2,167	-	2,168
	계	6,538	-	15,694	13,174	35,406
2001	곡 류	547	-	1,413	1,817	3,778
	과실류	472	45	957	16,977	18,451
	채소류	9,014	-	23,093	23,988	56,095
	서 류	582	-	797	1,252	2,630
	특작류	5	-	6,015	-	6,020
	기 타	5	-	-	300	305
계	10,625	45	32,274	44,334	87,279	
2002	곡 류	1,211	584	6,540	3,908	12,243
	과실류	529	321	1,722	55,383	57,956
	채소류	13,368	3,797	46,749	40,291	104,205
	서 류	1,032	139	1,550	2,463	5,183
	특작류	106	21	17,111	68	17,306
	기 타	3	2	3,157	319	3,481
계	16,249	4,865	76,828	102,432	200,374	
2003	곡 류	2,953	3,665	15,262	7,395	29,275
	과실류	583	1,178	3,865	114,569	120,195
	채소류	19,845	3,639	64,916	86,114	174,514
	서 류	1,314	322	2,926	3,306	7,868
	특작류	389	45	33,193	173	33,800
	기 타	-	-	196	1	197
계	25,084	8,849	120,358	211,558	365,84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www.naqs.go.kr), 2003.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및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1999년에 유기재배의 경우 채소류가 88.9%, 과실류 6.1%, 곡류 3.8%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채소류 79.1%, 곡류 11.8%, 서류 5.2%, 과실류 2.3%로 곡류와 서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농약재배의 경우는 1999년에 채소류의 비중이 66.1%, 과실류 30.4%, 서류 2.2%, 곡류 1.2%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과실류 54.1%, 채소류 40.7%, 곡류 3.5%, 서류 1.6%로 과실류와 곡류의 출하량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재배면적의 실태(2003년 기준)를 보면 품목별로 인증 유형별 구성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쌀의 경우 전체 10,413개 인증농가 가운데 유기재배 농가는 545농가로 5.4%를 차지하며, 전환기유기재배 농가가 1,002호로 9.9%, 무농약재배 농가가 4,666농가로 46%, 저농약재배 농가는 4,200농가로 41.4%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인증 쌀 재배면적의 경우도 무농약재배 45.3%, 저농약재배 36.1% 등으로 유사한 구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추는 전체 383개 인증농가 중 유기재배 농가가 19.8%, 무농약재배 농가가 261농가로 68.1%를 차지하며, 저농약재배 농가는 30농가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는 전체 155개 인증농가 중 유기재배 농가가 122농가로 78.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무농약재배 농가가 28농가로 18.1%, 전환기 및 저농약재배 농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는 전체 1,044농가 중 저농약재배 농가가 1,536농가로 약 9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무농약재배와 유기재배 농가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2003년 기준)

단위: 호, ha, (%)

구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계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쌀	545 (5.4)	572 (6.9)	1,002 (9.9)	974 (11.7)	4,666 (46.0)	3,772 (45.3)	4,200 (41.4)	3,004 (36.1)	10,413 (100.0)	8,322 (100.0)
상추	76 (19.8)	90 (14.6)	16 (4.2)	16 (2.6)	261 (68.1)	297 (48.1)	30 (7.8)	214 (34.7)	383 (100.0)	617 (100.0)
감자	122 (78.7)	31 (54.9)	1 (0.6)	1.5 (2.7)	28 (18.1)	23 (40.7)	4 (2.6)	1 (1.8)	155 (100.0)	56.5 (100.0)
포도	32 (1.9)	19 (1.8)	28 (1.6)	13 (1.2)	117 (6.8)	73 (7.0)	1,536 (89.7)	939 (89.9)	1,713 (100.0)	1,044 (10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www.naqs.go.kr), 2003.

3.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유형, 인증년차, 영농장부 작성여부 및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쌀 71농가, 감자 29농가, 상추 43농가, 포도 55농가 등 총 198개 농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에 의한 생산비 조사를 실시하였다.¹⁾

관행재배의 생산비 및 소득기준 자료는 쌀의 경우 통계청의 「농산물생산비통계」(2003)를 이용하였고, 감자·상추·포도 등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 자료집」(2003)에 제시된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조사대상 농가의 경영주 평균적 특성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연령은 50대 초반, 교육수준은 중졸 수준,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은 7~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년차는 2~3년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은 관행재배에 비해 인증유형별, 품목별, 기술수준별 차이가 있으나, 특히 유기재배 단수의 경우 관행재배에 비해 쌀은 20%, 상추·감자·포도 등은 33~46%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기재배 생산비의 경우 관행재배에 비해 일반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고 유기질비료비와 환경농자재비 등이 증가하여 쌀은 74%, 상추·감자·포도 등은 20~42% 정도 더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은 농가수취가격의 차별화 정도에 따라 품목별·인증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단보당 생산비는 관행농업의 530천원에 비해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1.4~1.7배 수준으로, 저농약재배 747천원, 무농약재배 837천원, 유기재배 92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보당 소득의 경우 일반 관행농가 536천원을 기준으로 저농약재배는 76.5% 수준인 410천원, 무농약재배는 84.9% 수준인 455천원, 유기재배는 97.7% 수준인 52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상추 재배농가의 단보당 생산비는 일반 관행농업의 4,111천원에 비해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1.1~1.23배 수준으로, 저농약재배 4,523천원, 무농약재배 4,893천원,

1)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조사는 2003. 11. 15~12. 5 기간에 생산비조사표를 이용한 심층면담 조사로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창길·김태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소득 차이 비료분석」, 연구보고 C2003-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pp.22-34에 제시되어 있다.

유기재배 5,080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보당 소득은 관행재배 2,871천원에 비해 저농약재배는 71.5% 수준인 2,054천원이며, 무농약재배는 91% 수준인 2,617천원, 유기재배는 93.6% 수준인 2,68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감자 재배농가의 단보당 생산비는 관행농업의 838천원에 비해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1.06~1.2배 수준으로, 저농약재배는 892천원, 무농약재배는 954천원, 유기재배는 1,013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보당 소득은 관행재배 523천원에 비해 저농약재배는 89.9%인 470천원, 무농약재배는 82.7%인 433천원, 유기재배는 79.7% 수준인 417천원으로 유기재배로 갈수록 소득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노지포도 재배농가의 단보당 생산비는 관행농업 2,102천원에 비해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1.22~1.42배 수준으로, 저농약재배 2,564천원, 무농약재배 2,762천원,

표 4.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차이 비교

구 분		단 수 (kg/10a)	가 격 (원/kg)	생산비 (천원/10a)	소 득 (천원/10a)	순수익 (천원/10a)	
쌀	관 행	654(100.0)	1,481(100.0)	530(100.0)	536(100.0)	439(100.0)	
	저농약	611(93.4)	1,633(110.2)	747(141.1)	410(76.5)	250(57.0)	
	무농약	563(86.1)	1,920(129.6)	837(158.0)	455(84.9)	245(55.7)	
	유 기	526(80.4)	2,292(154.8)	922(174.2)	524(97.7)	283(64.4)	
상추	관 행	4,486(100.0)	1,218(100.0)	4,111(100.0)	2,871(100.0)	1,353(100.0)	
	저농약	3,520(78.5)	1,404(115.3)	4,523(110.0)	2,054(71.6)	419(31.0)	
	무농약	2,850(63.5)	1,975(162.2)	4,893(119.0)	2,617(91.1)	736(54.4)	
	유 기	2,463(54.9)	2,347(192.7)	5,080(123.6)	2,688(93.6)	701(51.8)	
감자	관 행	2,525(100.0)	423(100.0)	838(100.0)	523(100.0)	230(100.0)	
	저농약	1,963(77.7)	534(126.2)	892(106.4)	470(89.8)	156(67.8)	
	무농약	1,582(62.7)	667(157.7)	954(113.8)	433(82.7)	101(44.1)	
	유 기	1,359(53.8)	792(187.2)	1,013(120.8)	417(79.7)	64(27.7)	
포도	노지	관 행	1,922(100.0)	1,709(100.0)	2,102(100.0)	2,223(100.0)	1,183(100.0)
		저농약	1,496(77.9)	2,320(135.8)	2,564(122.0)	2,251(101.2)	908(76.7)
		무농약	1,260(65.6)	2,675(156.5)	2,762(131.4)	2,086(93.8)	608(51.4)
		유 기	1,025(53.3)	3,250(190.2)	2,983(141.9)	1,982(89.1)	348(29.4)
	시설	관 행	1,921(100.0)	4,265(100.0)	4,768(100.0)	4,891(100.0)	3,425(100.0)
		저농약	1,787(93.0)	4,740(111.1)	5,521(115.8)	4,998(102.2)	2,949(86.1)
		무농약	1,550(80.7)	5,350(125.4)	6,018(126.2)	4,680(95.7)	2,275(66.4)
		유 기	1,282(66.7)	6,403(150.1)	6,353(133.2)	4,489(91.8)	1,854(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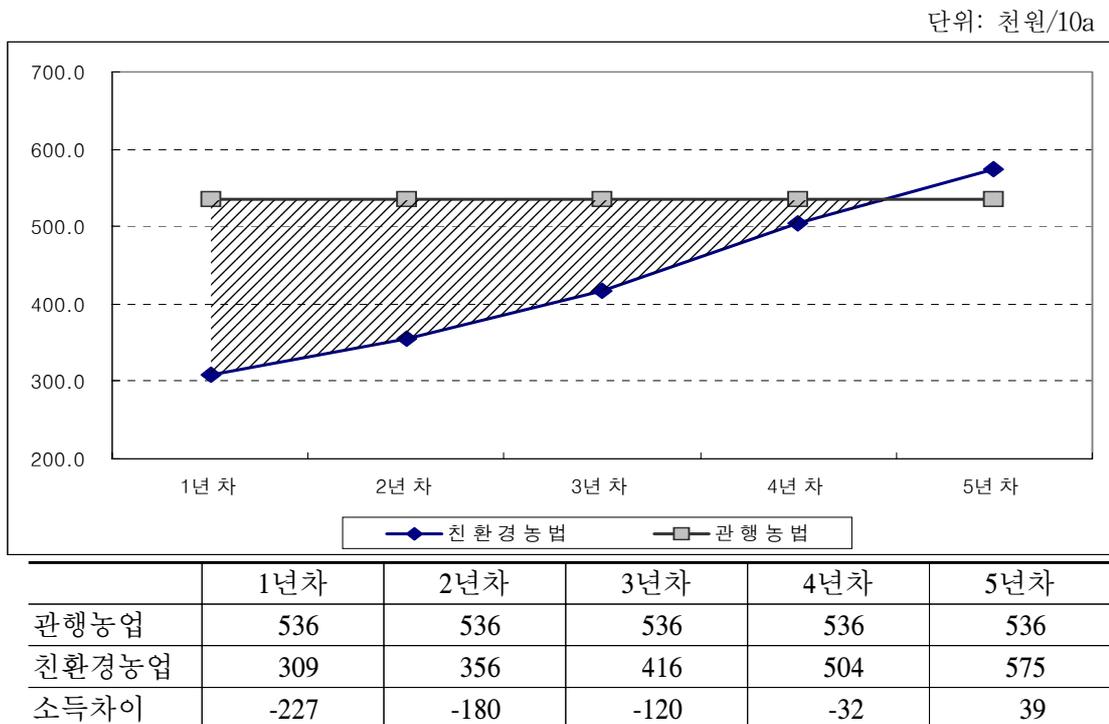
주: ()는 관행재배 농산물을 100.0으로 환산하여 비교분석한 지수임.

유기재배 2,983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보당 소득은 관행재배 2,223천원에 비해 저농약재배는 1.01배인 2,251천원으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무농약재배는 관행농업 대비 93.8% 수준인 2,086천원, 유기재배는 89.1% 수준인 1,982천원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생산비는 관행 시설포도 생산비 4,768천원에 비해 친환경 인증유형별로 1.16~1.33배 수준으로, 저농약재배 5,521천원, 무농약재배 6,018천원, 유기재배 6,353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단보당 소득은 관행농가 4,891천원 대비 저농약재배는 1.02배인 4,998천원, 무농약재배는 95.7%인 4,680천원, 유기재배는 91.8%인 4,489천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 쌀, 상추, 감자 생산의 경우 유기재배로 갈수록 수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증가하여, 비록 농가수취가격의 프리미엄 수준이 높아도 관행농업의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는 저농약재배의 경우 가격 프리미엄에 비해 수량 감소폭과 생산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행재배에 비해 소득이 높았으며, 무농약재배와 유기재배의 경우 관행농업에 비해

그림 3. 연차별 쌀 소득차이 분석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감소 및 생산비가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쌀 생산농가와 관행농가의 연차별 소득차이를 비교해보면, 기술수준이 안정되지 않은 인증 초년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다가 4년차를 지나면서 관행농가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며, 인증 5년차부터 오히려 관행농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인증 1년차의 단보당 소득수준은 309천원으로 관행농가 536천원에 비해 227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각각 180천원, 120천원, 32천원으로 소득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5년차에는 단보당 소득수준이 575천원으로 일반 관행농가보다 7.2% 높은 수준인 39천원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 쌀의 경우 판로가 확보되어 높은 수준의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농가수취가격과 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5>. 즉,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면 단수가 줄어들고 생산비가 늘어나더라도 관행재배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친환경 쌀 가격차별화 수준별 생산비 비교

단위: 천원/10a

구 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高차별화	低차별화	高차별화	低차별화	高차별화	低차별화	
조 수 입(A)	1,373	1,069	1,196	1,000	1,122	952	
가격(조곡, 원/kg)	2,590	2,057	2,112	1,786	1,813	1,577	
경 영 비(B)	675	723	615	654	583	605	
생 산 비	908	969	816	880	735	820	
소 득(A-B)	697	347	581	346	540	347	
관행 대비 분석 지표 (%)	조 수 입	141.7	110.4	123.5	103.3	115.9	98.3
	가격(조곡)	174.9	138.9	142.6	120.6	122.4	106.4
	경 영 비	156.1	167.1	142.3	151.2	134.7	139.8
	생 산 비	171.5	182.9	154.1	166.2	138.8	154.9
	소 득	130.1	64.7	108.3	64.6	100.7	64.8

주: 친환경농산물 가격차별화 수준과 관련 高차별화와 低차별화의 구분은 kg당 농가수취가격을 적용하여 유기재배의 경우 2,300원, 무농약재배의 경우 2,000원, 저농약재배의 경우 1,700원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림 4. 친환경 쌀 수취가격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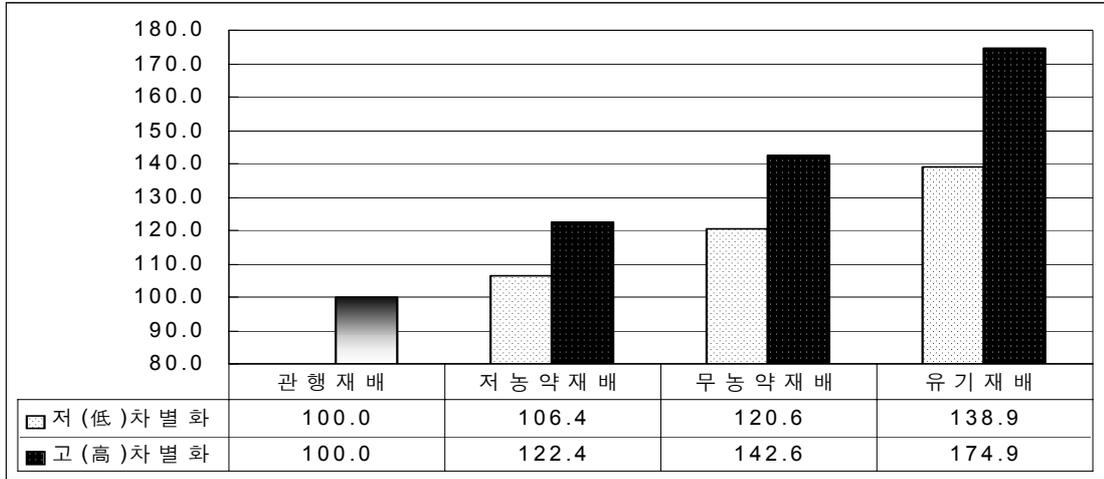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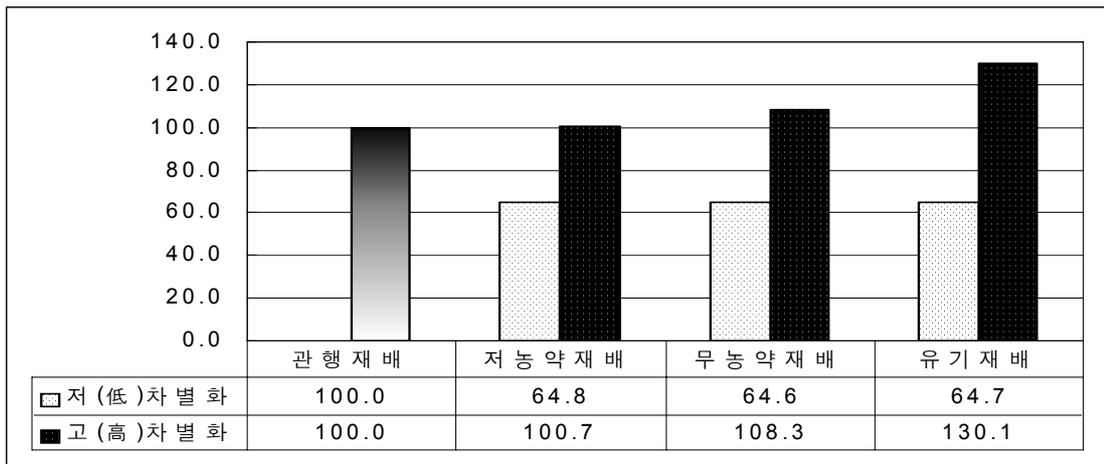


그림 5. 친환경 쌀 가격차별화 수준별 농가 소득 비교



유기재배 쌀의 가격차별화에 따른 소득수준 변화를 보면 저(低)차별화의 경우 관행수준의 64.7% 정도로 낮으나, 고(高)차별화의 경우 오히려 관행대비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농약재배의 가격차별화에 따른 소득수준 변화는 저차별화의 경우 관행수준의 64.6%에 불과하나, 고차별화의 경우 관행대비 1.08배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농약재배는 가격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생산비 증가율이 높아 저차별화의 경우 관행대비 64.8% 수준으로 낮고, 고차별화의 경우 관행농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행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판로망 구축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시사점

친환경농산물 주요 품목(쌀, 상추, 감자, 포도)의 생산비 조사결과 유기재배로 갈수록 수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증가하여, 저농약 포도재배를 제외하고는 비록 농가수취가격의 프리미엄 수준이 높아도 관행농업의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친환경농자재의 활용 및 제조작업 등에 따른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실천기술이 보급되어야 한다. 특히 농법전환을 희망하는 농가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인증단계별 실용화된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관행농산물과 차별화되어 판매될 수 있는 적절한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실천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직접지불제를 보완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법도입의 이행 초기에는 수량이 감소하고 생산비도 증가한 반면 판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농가수취가격의 프리미엄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관행재배로부터 유기재배로 전환하기 위한 4~5년간의 이행기간에는 소득 감소분이 보상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완 등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인증 쌀의 연차별 소득분석 결과를 보면 실천경력이 4년차까지는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감소하므로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차별 소득수준 격차(단보당 소득 수준 격차는 1년차 227천원, 2년차 180천원, 3년차 120천원, 4년차 32천원)가 달라지므로 친환경농업 실천의 이행기간을 고려한 적절한 직불금 산정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의 생산비 및 소득 차이에 관한 분석 자료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의 지원단가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격차만을 근거로 지원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소득, 생산비, 순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에 따라 연차별로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환경친화적 농업경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된 판로망 구축을 통해 획득한 가격 프리미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외부 경제효과(농산물의 안전성과 환경개선 효과 등)의 내부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자료에서 제시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표본이 인증농가 중 영농장부를 작성하고 있거나 자체 경영분석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유의추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환경농법 실천경력이 낮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실천농가들의 생산비 및 소득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연차별 생산비 및 소득 차이에 관한 자료는 시계열 조사로 이루어진 자료가 아니고 횡단면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개별농가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에 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벼 생산비 조사와 같이 지역별·인증유형별로 대표 농가를 선정하여 매년 생산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연차별 생산비 및 소득분석을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미래농업의 핵심 분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영농장부 작성과 이를 기초로 한 생산비 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MEMO

KREI 농정연구속보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4. 4. 29

발 행 2004. 4. 30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 www.krei.re.kr](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 이 자료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